

일부 성인 여성의 우울, 자아존중감 및 미용성형수술 수용성

서윤암*, 김영아**

*제주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

**제주대학교 간호학과

e-mail:yakim@jejunu.ac.kr

Depression, Self-esteem, and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in Korean Adult women

Yun Am Seo*, Young A Kim**

*Dept. of Data Science, Jenu National University

**Dept. of Nursing, Jeju National University

요 약

본 논문에서는 20-60대 한국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, 자아존중감 및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의 수준과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. 최종적으로 291명의 대상자의 자료가 수집되었고, 이들의 평균 연령은 44.1세였다. 전체 대상자의 30.2%는 미용성형수술이나 시술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고, 52.6%는 추후의 미용성형을 고려하고 있었다. 대상자의 연령은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 ($r=-0.17, p=.003$),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은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 ($r=0.26, p<.001$),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은 자아존중감과 음의 상관관계 ($r=-0.14, p=.020$)가 확인되었다. 일부 성인 여성들의 심리적인 변수와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용성형 경험 실태와 추후 미용성형 의도, 미용성형경험에 따른 심층 분석 등을 제언한다.

(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[ACS]), 우울 (Depression), 자아존중감(Self-esteem)의 수준을 조사하였다.

1. 서론

미용성형수술은 신체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[1,2].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성형수술을 더욱 고려하고 시행한다[3]. 높은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은 미용성형의 실행에 큰 영향을 주는데,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에는 성별, 미용성형 경험, 자아존중감 등이 영향을 미친다[4-6].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환자는 일반 인구보다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크며, 좋은 수술의 결과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 사회적 특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[7,8]. 이에 본 연구는 미용성형과 관련된 사회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자 20-60대 한국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, 자아존중감,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의 수준을 조사하여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.

2. 연구방법

본 연구의 대상자는 온라인조사업체에 등록된 20-60대 일반 성인 여성 패널 291명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자들이다.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, 미용성형수술 수용성

3. 결과

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44.1(±13.8)세, '기혼' 60.1%, '미혼' 39.9% 이었고, 취업 여부로 '예' 65.3%, '아니오' 34.7% 이었다. 단일 가구 17.5%, 2인 이상 가구 82.5%이었고, 가정의 경제 수준은 '상' 3.8%, '중' 82.5%, '하' 24.7%, 주관적 스트레스는 '상' 22.7%, '중' 63.2%, '하' 14.1%로 나타났다. 미용성형을 경험한 대상자는 30.2%로, 최초로 성형을 시도한 나이는 평균 27.2(±10.2)세였으며, 전체 대상자 가운데 추후 미용성형을 고려하는 대상자는 52.6%였다.

주요 측정변수의 평균 수치는 ACS=64.9(±17.6), Depression=11.6(±10.6), Self-esteem=29.4(±4.8) 이었다.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미용성형 관련 특성에 따른 ACS는 주관적 스트레스($F=7.76, p=.001$), 성형경험 여부($t=7.99, p<.001$)와 추후 고려하는 미용성형 여부($t=12.46, p<.001$)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

대상자의 연령은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 ($r=-0.17, p=.003$)를 보였다. ACS는 Self-esteem($r=-0.14, p=.020$)과 음의 상관관

계, Depression과는 양의 상관관계($r=0.26, p<.001$)를 보였다. Depression과 Self-esteem은 음의 상관관계($r=-0.60, p<.001$)를 보였다.

4. 논의

본 조사연구를 통하여 적지 않은 수의 성인 여성들이 추후의 미용성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따라서 잠재적인 미용성형의 소비자가 상당함을 추정할 수 있다. 또한 본 연구대상자들 가운데 미용성형을 이미 경험한 대상자는 30.2%로, 최초로 성형을 시도한 연령이 15세부터 61세까지로 다양하였다. 대상자들의 ACS는 depression과 양의 상관관계를, self-esteem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. 남녀 대학생을 조사한 Swami et al.[3]에서는 ACS는 self-esteem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상반되지만,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와 유사한 선행연구[6]도 있다. 특히 한국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성형 참여 의도가 높다는 연구가[9] 있으며, 성형수술의 의도는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성을 나타낸 바 있다[5]. 미용성형과 자아존중감은 밀접한 관계로 여겨지며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
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여성을 이해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다. 적은 샘플 크기의 한국의 일부 성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제한점이 있다.

5. 결론

연구의 결과는 미용성형을 경험하였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일부 성인 여성들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시도되었다. 전국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잠재적인 미용성형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특성과 미용성형 관련 특성을 조사하고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.

참고문헌

- [1] Son EJ, "Critical factors of th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among women: A comparison of young and middle-aged groups", *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*, 24(1), pp. 149-173, 2012.
- [2] Karupiah P, "Modification of the body: a comparative analysis of views of youths in Penang, Malaysia and Seoul, South Korea", *Journal of Youth Studies*, 16(1), pp. 1-16, 2012.
- [3] Swami V, Chamorro-Premuzic T, Bridges S, Furnham

- A., "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: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predictors", *Body Image*, 6(1), pp. 7-13, 2009.
- [4] Henderson-King D, Henderson-King E, "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: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", *Body Image*, 2, pp. 137-149, 2005.
- [5] Yoon SH, Kim YA, "Cosmetic surgery and self-esteem in South Korea: A systematic review and meta-analysis", *Aesthetic Plastic Surgery*, 44(1), pp. 229-238, 2019.
- [6] Seo YA, Cho Chung HI, Kim YA, "Experience and acceptance of cosmetic procedures among South Korean women in their 20s", *Aesthetic Plastic Surgery*, 43(2), pp. 531-538, 2019.
- [7] Ambro BT, Wright RJ, "Depression in the cosmetic surgery patient", *Facial Plastic Surgery*, 26(4), pp. 333-338, 2010.
- [8] Naraghi M, Atari M, "A comparison of depression scores between aesthetic and functional rhinoplasty patients", *Asian Journal of Psychiatry*, 14, pp. 28-30, 2015.
- [9] Phuah KT, Ting JL, Kelly WKS, "Propensity to undergo cosmetic surgery and services in Seoul", *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Development & Management Studies*, 3, pp. 1-16, 2019.